

초록번호 18-2

제 목	국 문	예방의학회지(1997년)에 게재된 영문초록의 질 평가	
	영 문	Quality Assessment of the Abstracts of Original Articles in The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종구 <sup>1</sup> , 김춘배 <sup>1</sup> , Desmond Hannival <sup>2</sup>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영 문	Jong Ku Park <sup>1</sup> , Chun-Bae Kim <sup>1</sup> , Desmond Hannival, MA <sup>2</sup> Dep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sup>1</sup>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up>2</sup>	
분 야	연구방법론	발 표 자	김춘배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 ) → 완료 예정 시기 : 1998년 11월		
<p><b>1. 연구 목적</b></p> <p>대한예방의학회의 창립 50주년과 함께 예방의학회지도 3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1968년의 창간부터 1985년까지의 연1회, 1986-88년에는 연2회, 그리고 1989년부터는 연4회로 중간되어 양적인 팽창을,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상호심의제도를 채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확정하므로서 일정한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물론 다른 의학분과학회지들도 거의 동일한 추세로 발전해 온 가운데 과학문헌 인용지표(SCI)나 Medline 등재를 위해 다양한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KoreaMed 등재를 위한 대한의학회학술지편집인협의회 주관의 국내의학학술지 평가가 수행중이며 지난 5월 27일 예방의학회지를 포함한 총 9개 학회지가 2차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회지가 특히 영문초록체제 및 오자 항목에서 수준 이하로 평가를 받은바 있어 우리 나라 의학학술지의 열악한 현주소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방의학회지 제 30권에 실린 원저를 중심으로 영문초록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므로서, 우리 학술지 발전의 초석을 제공하고자 한다.</p> <p><b>2. 연구 방법</b></p> <p>연구대상은 1997년에 발간된 예방의학회지 제30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게재된 63편의 원저이다. 주요 조사변수는 공동저자수, 공동연구기관수, 제1저자의 연구경력, 논문주제의 분류, 연구비 수혜여부, 사용 영어단어수, 전문교정 여부, 단어 오자수 및 Narine L 등의 평가기준에 의한 초록체제의 질 평가 등이다. Narine L 등의 평가기준에 의한 질 평가는 2명의 연구자가 기 작성된 평가표를 사용하여 모든 논문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투고전 전문 교정인에 의한 영문초록 교정 여부 등의 변수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부터 Fax설문이나 전화설문에 의해 조사하였고, 오자 항목등은 전문 교정인인 공동연구자가 별도로 평가하였다. 영문초록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변수의 성격에 따라 t-검정, X<sup>2</sup>-검정 및 중회귀분석을 하였다.</p>			

### 3. 연구결과

1) 공동저자수는 1명에서 13명까지 우향왜곡된 분포(2명 9.5%, 3명 14.3%, 4명 21.2%, 5명과 6명이 각각 11.1% 등)를 보였으며, 공동연구기관수도 1개에서 8개까지 우향왜곡 분포(1개 49.2%, 2개 28.6%, 3개 14.3% 등)를 하였다. 논문주제별로는 환경 및 산업보건분야가 28편(44.5%), 보건관리분야가 21편(33.3%), 역학분야가 14편(22.2%)이었고 다빈도로 게재된 소주제는 직업성질환과 건강관련행태가 각각 5편(7.9%)씩이었다. 연구비 수혜율은 34.9%이었다. 32편(51.6%)이 석박사논문에 해당되었고, 11편(17.7%)만이 투고전 외국인에 의한 전문교정을 받았으며 30편(47.6%)이 사독과정중 영문초록에 대한 지적을 받아 수정되었다.

2) 영문초록의 평균 사용단어수와 주제단어수는 각각 281.4개와 3.8개였다. 1편당 평균 오자수는 14.1개였고, 초록체제 질 평가의 평균점수는 0.55점(만점 1점)이었다.

3) 초록체제의 질 평가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중회귀분석 결과(adjusted  $R^2=0.229$ ,  $p=0.002$ ), 공동저자수, 연구비 수혜여부, 학위논문 여부, 사독과정에서의 지적 여부 및 사용단어수가 정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사용단어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0$ ). 영문초록의 오자수를 종속변수로 한 중회귀분석 결과(adjusted  $R^2=0.208$ ,  $p=0.005$ ), 공동저자수, 제1저자 경력기간, 학위논문 여부, 사독과정에서의 지적여부 및 투고전 전문교정 여부가 음의 상관관계를, 연구비 수혜와 사용단어수가 정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제1저자 경력기간( $p=0.034$ )과 사용단어수( $p=0.000$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4. 고찰

결론적으로 예방의학지 영문초록의 질 평가와 관련하여 초록체제의 질 수준에서는 사용단어수가, 오자수에서는 제1저자 경력기간과 사용단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판단된다. 투고전 전문교정 여부 및 사독과정에서의 지적여부 또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치하므로 이 점에 회원 모두가 유념하여야 하겠으며 편집기관에 전문 영문사독인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